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의 중국 국경지역 공격 발생과 전망

김미림 연구원
KIEP 동남아대양주팀

■ 주요 내용

- 2016년 11월 20일 소수민족 무장집단들이 꺼친(Kachin) 주와 샨(Shan) 주의 주요 도시, 군부대, 경찰 초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정부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교전이 발생함.
- 이번 무력충돌은 60여 년간 지속된 정부군과 소수민족 간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뽕롱 신 평화회의 이후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미얀마 군부의 역할은 이번 무력충돌을 확대시킨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보임.
- 이번 무력충돌로 인해 신 뽕롱 평화회의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미얀마 신정부가 이번 무력충돌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나갈지 주목됨.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 2016년 11월 20일 소수민족 무장집단들이 꺼친(Kachin) 주와 산(Shan) 주의 주요 도시, 군부대, 경찰 초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정부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교전이 발생함.

- 꺼친 독립군(KIA), 타양 민족해방군(TNLA), 아라칸 군(AA),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이 연대하여 공격에 참가하였으며 참여 군인 수는 700여 명으로 알려짐.

표 1.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정부군 충돌 일지

일시	내용
11월 20일	· 소수민족 무장집단, 꺼친 주와 산 주의 도시, 군부대와 경찰 초소 공격 · 소수민족 무장집단과 정부군 간 권총, 박격포, 대포, 전투기 사용 교전
11월 23~24일	· 무세-라시오 고속도로 교전
11월 25일	· KIA와 TNLA, 쿿카이 고속도로 점거 · KIA의 무세 고속도로 점거 해제 · 정부 고위 평화협상단, 양자 간 무력 공격 중단을 위한 합의안이 강구되었다고 밝힘.
12월 4일	· 정부군 전투기 격추

자료 : IHS Global, 연합뉴스

- 12월 8일 현재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명, 부상자 수는 50명, 난민 수는 6천 명¹⁾으로 보도됨.
 - 중국과의 주요 교역관문인 무세에서 교전이 발생함에 따라 난민 중 약 절반이 중국 윈난(雲南)성으로 피난 가는 사태가 발생함.
- 평균 교역액이 50억 달러²⁾에 이르는 무세 국경무역지구는 기능이 마비되어³⁾ 교역 재개가 불투명하며 농산물 등 상품 손실, 화물 파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됨⁴⁾.

1) 비정부 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 수는 공식 통계 수치인 6천 명을 상회함.

2) IMF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5년 미얀마의 대 중국 교역액은 150억 8,854만 달러임.

3) 11월 25일 기준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무세 국경무역지구는 여전히 출입이 금지됨.

4) 무세로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 배 증가하였으며 교전지역으로 가는 기차와 버스의 운행이 중단됨. 또한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무장단체가 점거 도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들과 점거 지역 기업인들에게 돈을 거둠.

2 원인 분석

이런 무력충돌은 60여 년간 지속된 정부군과 소수민족 간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뽉롱 신 평화회의 이후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미얀마 군부의 역할은 이번 무력충돌을 확대시킨 또 하나의 배경으로 보임.

- 미얀마는 크게는 최대 종족 버마족(Bamar)외 7개 종족, 세부적으로는 134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식민지 독립 이후 소수민족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해옴.
-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지역은 옥, 티크 등 부존자원이 많고 국경 무역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으며 이는 순조로운 분쟁해결을 방해해왔음.

그림 1.미얀마 지도



자료 : Oxford Burma Alliance

그림 2. 미얀마 민족 134개 집단 분류

Kachin 꺼찬족 (12)	Kachin, Taron, Dalaung, Jingpaw, Guari, Hkahku, Duleng, Maru, Rawang, Lashi, Atsi, Lisu
Kayah 까야족 (9)	Kayah, Pale, Zayein, Ka-Yun, Manu Manaw, Gheko, Yin Talai, Yin Baw, Kayinpyu
Kayin 까잉족 (10)	Kayin, Kayinphu, Pa-Le-Chi, S'gaw, Monpwa, Ta-Hlay-Pwa, Paku, Bwe, Monnepwa, Shu
Chin 친족 (53)	Anu, Anun, Asho, Awa Khami, Bre, Chin, Dai, Dim, Eik-swair, Gunte, Guite, Haulng, Ka-Lin-Kaw, Kaung Saing Chin, Kaungso 등
Bamar 버마족 (9)	Bamar, Dawei, Beik, Yaw, Yabein, Kadu, Ganan, Salon, Hpon
Mon 몽족 (1)	Mon
Rakhine 여카잉족 (7)	Rakhine, Kamein, Kwe Myi, Daingnet, Maramagyi, Mro, Thet
Shan 산족 (33)	Shan, Yun(Lao), Kwi, Pyin, Yao, Danaw, Pale 등

자료 : Oxford Burma Alliance, 괄호 안은 민족 집단 수

- 이에 2016년 3월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교전 종식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9월 초 산 주 뽉롱(Panglong)에서 신 평화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협의의 장을 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는 데에 그침.
 - 신 뽉롱 평화회의에는 이번에 무장공격을 감행한 소수민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음.
- 반면 미얀마 군부는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신정부와 달리 연방 창설에 반대하고 영토분리에도 반대함.

3

전망과 시사점

▣ 이번 무력충돌로 인해 신 뵙롱 평화회의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미얀마 신정부가 이번 무력충돌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나갈지 주목됨.

- 내년 2월 제2차 신 평화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적인 평화협정 타결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국경무역 중단, 난민사태 발생 및 자국 영토로의 포탄 발사⁵⁾ 등이 일어난 현 사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미얀마의 요청에 따라 사태 안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 중국에게도 국경 지대의 안정과 국경 무역 원활화는 중요한 국가이익임.
- 미얀마 신정부도 교전 종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미국과 중국 간 등거리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교전이 발생한 북부 국경지역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경제 중심지인 양곤과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EMERiCs**

출처

IHS Global, 연합뉴스, Oxford Burma Alliance

5) 꺼친 독립군(KIA)과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이 중국 영토에 박격포 13개를 발포함.